

『大乘起信論』의 初相과 『釋摩訶衍論』의 三種生相
- 『起信論疏』·『大乘起信論義記』와의 비교 -

김지연

(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)

목차

- I. 들어가는 말
- II. 『起信論疏』와 『大乘起信論義記』의 初相 해석
 1. 元曉의 『起信論疏』의 生相
 2. 法藏의 『大乘起信論義記』의 生相
- III. 『釋摩訶衍論』 해석의 독창성
 1. 『釋摩訶衍論』이 생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
 2. 三種生相과 二種覺位 구조의 논리적 타당성
- IV. 나오는 말

I. 들어가는 말

대승의 가르침을 한권에 축약하여 독자로 하여금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『大乘起信論』(이하 『起信論』으로 약칭)은 馬鳴이 저술하고 眞諦와 實叉難陀가 각각 번역하였다. 하지만 이 논의 저술자, 번역자, 찬술지역 등에 대한 논란은 어떠한 결론도 맺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『기신론』에 담겨있는 대승의 法, 즉 一心을 서술하는 체계성과 논리성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논을 동아시아 불교의 구심점에 위치하게 하였다. 『기신론』에서는 일심을 心眞如門과 心生滅門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, 후자인 심생멸문은 다시 法과 義로 양분하여 파악한다. 법에서 심생멸은 覺과 不覺으로 설명되고 있는데, 각은 始覺·相似覺·隨分覺·究竟覺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. 이 가운데 최후의 경지인 구경각에 대해 『기신론』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.

보살지를 다함과 같음은 방편을 만족하고 일념이 상응하여 마음이 처음 일어난 것을 깨달아서 마음에는 처음 일어난 상[初相]이 없다. 미세한 망념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심성을 볼 수 있게 되고, 마음에는 이제 움직임이 없으니[常住] 구경각이라 이름한다.¹⁾

1) 『大乘起信論』(T.32, 576b23-26): 如菩薩地盡 滿足方便一念相應 覺心初起心無初相 以遠離微細念故 得見心性 心即常住 名究竟覺.

본고는 『기신론』의 구경각에 대한 위와 같은 서술에서 ‘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서 마음에는 처음 일어난 상이 없다[覺心初起心無初相]’고 하며 初相을 드러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한다. ‘초상’은 구경각을 얻은 자만이 끊을 수 있는 가장 미세한 상으로 바로 ‘생상’을 가리킨다. 이 생상은 生·住·異·滅의 네 가지 상[四相]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상이므로 『기신론』은 ‘生相’이라는 용어 대신 ‘初相’으로 표현한다.²⁾

반면에 『기신론』의 여러 주석서에서는 명확하게 ‘초상’을 ‘생상’이라고 밝히면서 생상을 상세하게 설명한다. 그러나 주석서마다 생상의 대상이 되는 상과 그 범위의 규정이 다르게 나타난다. 따라서 『기신론』에서 구경각을 정의하는 부분에 보이는 ‘초상’에 대해 元曉의 『起信論疏』(이하 『海東疏』로 약칭), 法藏의 『大乘起信論義記』(이하 『法藏義記』로 약칭), 龍樹가 저술하고 筏提摩다가 번역한 『釋摩訶衍論』(이하 『釋論』으로 약칭)³⁾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.⁴⁾ 이를 통해서 세 논서가 ‘초상’인 ‘생상’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다른지, 그에 따라 어떻게 해석의 변화가 나타나는지,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.⁵⁾

2) 『大乘起信論』에는 ‘生相’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고 ‘初相’만 세 차례 사용한다.

3) 『釋摩訶衍論』의 일본에 전래된 시기(779년)부터 끊임없이 저자와 번역자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,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(김지연 2014, 16-22) 참조.

4) 杏雨書屋所藏敦煌文獻『大乘起信論疏』에서는 「기신론」의 “覺心初起心無初相”에 대해 “「覺心初起」, 惡心初起時, 卽覺知也. 亦可是彼客塵無明, 初與眞合, 令心安動, 此是「初」也. 「初無初相」, 窮其初體, 唯是無念. 念尙非有, 焉有初也.”(池田將則 2012, 129)라고 한다. 이 부분에서 ‘초상’이 ‘생상’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, 앞부분에서 “第四明十地已去菩薩, 覺知生相, 名究竟覺”(池田將則 2012, 127)이라고 했기 때문에 『大乘起信論疏』에서도 ‘초상’은 ‘생상’임을 알 수 있다. 하지만 생상이 불각상 중에 어떤 상에 대응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본고의 논의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.

5) 楠正仁(1984)는 『법장의기 와』석론을 비교하여, 『석론』의 특징은 생상의 세 종류 중에 독립수상과 無念으로서의 本念이라고 정리하였다. 하지만 『해동소의 생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, 『석론』이 왜 세 가지 생상을 만들어 사용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지 않았다.